

- 주요 뉴스: 미국, 3/4분기 성장률은 2.6% 금년 첫 플러스 성장이나 일부 불안 요인 내재
 - Apple 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iPhone 및 서비스 등 핵심 사업은 다소 부진
 - ECB, 주요 정책금리 0.75%p 인상. 유동성 공급 지원책(TLTRO III)의 출구전략 모색
 - 중국 1~9월 공업부문 이익, 전년동기비 감소세 심화. 수요 부진·비용 증가에 기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주요 기업의 실적 둔화 등이 영향

주가 하락[-0.6%], 달러화 강세[+0.8%],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빅테크 실적 악화에 따른 기술주 약세 등이 배경
유로 Stoxx600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ECB 금리결정과 경기둔화 우려 등이 상충
- 환율: 달러화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의 경제여건 등이 반영
유로화가치는 1.2% 하락, 엔화는 0.1% 절상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5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421.4원, +4.4원) 0.3% 상승, 한국 CDS 상승

주요지표					주요지표				
		10/27일	10/26일	전일대비			10/27일	10/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807.3	3,830.6	-0.61%	국채금리 10y	미국	3.92%	4.00%	-8bp
	유럽	410.19	410.31	-0.03%		독일	1.96%	2.11%	-15bp
	중국	2,982.9	2,999.5	-0.55%		영국	3.40%	3.58%	-17bp
	일본	27,345	27,432	-0.32%	CDS 5y	한국	65bp	64bp	1bp
	한국	2,288.8	2,249.6	1.74%		중국	115bp	118bp	-3bp
환율	달러지수	110.57	109.70	0.79%	위험지표	EMBI+	-	449	-
	유로화	0.9964	1.0081	-1.16%		VIX	27.39	27.28	0.40%
	엔화	146.29	146.37	0.05%		WTI유	89.08	87.91	1.33%
	위안화	7.2290	7.1730	-0.77%	원자재	구리	352.0	354.5	-0.72%
	원화	1,417.0	1,426.6	0.68%		금	1,663.3	1,664.6	-0.0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3/4분기 성장률은 2.6%. 금년 첫 플러스 성장이나 일부 불안 요인도 내재

- 3/4분기 성장률(전기비연율)은 2.6%를 나타내 전기(-0.6%) 및 예상치(2.4%) 상회. 이번 결과는 무역부문 적자폭 축소 등에 기인. 3/4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 상황이 아님을 확인했으나, 여러 측면에서 경기하강 위험이 존재
-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소비 증가율이 2년 만에 최저를 기록. 국내투자 역시 '06년 이후 처음으로 6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모기지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건설 둔화 등이 원인. 이러한 모습들은 향후 경제성장에 부정적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
- 표면적인 수치들은 긍정적이나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내년 1/4분기에는 완만한 성장 둔화를 예상(BMO Capital Markets의 Sal Guatieri)
- 옐런 재무장관은 이번 결과가 경제의 강력함을 보여주지만, 향후 물가상승 압력 약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강한 경기둔화 징후도 있었다고 발언. 이는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면서 견조한 노동시장을 원하는 정부 목표에 부합한다고 부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Apple 분기 실적, 예상치 상회. 다만 iPhone 및 서비스 등 핵심 사업은 다소 부진

- 4/4분기(7/24~9/24일) 주당순이익과 매출은 각각 1.29달러 및 901.5억달러로 예상치(1.27달러, 889.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매출은 전기비 8% 증가. 팀 쿡 CEO는 달러화 강세가 없었다면 두 자릿수 증가율도 가능했다고 발언
- 하지만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iPhone 판매와 서비스(Apple Music, Apple TV+ 등) 부문 매출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 반면 Mac, Apple Watch, AirPods 등의 매출은 시장 예상보다 양호

■ 미국 10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소폭 늘어났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10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1.7만건으로 전주(21.4만건) 대비 증가. 해당 건수는 장기 측면에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연준의 통화긴축 여파로 향후 노동수요가 점차 줄어들 전망(High Frequency Economics)

■ ECB, 주요 정책금리 0.75%p 인상. 유동성 공급 지원책(TLTRO III)의 출구전략 모색

-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예금금리를 0.75%p 높은 1.5%로 결정. 이는 '09년 이후 최고 수준. 이 외에 리파이낸싱 금리 및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0.75%p 높여 2.00%, 2.25%로 조정
- 한편 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들에게 초저금리로 대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III)의 금리조건 변경 및 조기상환 촉구 등을 발표. 라가르드 총재는 향후 수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넘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
- 다만 시장에서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 시 향후 ECB의 실제 금리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구체적으로 금년 12월 및 내년 금리인상 폭은 각각 0.50%p, 0.25%p에 그칠 것으로 예상(PIMCO의 Konstantin Veit)

■ 독일 11월 Gfk 소비자신뢰, 전월비 소폭 상승. 하락세 종료 판단은 시기상조

- 11월 Gfk 소비자신뢰지수는 -41.9를 기록하여 전월(-42.8) 대비 상승. 다만 이번 결과만으로 장기간 이어지던 하락세가 끝났다고 평가하기는 너무 이르며, 전반적으로 소비자심리는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판단(Gfk의 Rolf Buerkl)

■ 중국 1~9월 공업부문 이익, 전년동기비 감소세 심화. 수요 부진·비용 증가에 기인

- 1~9월 공업부문 이익은 전년동기비 2.3% 줄어 1~8월(-2.1%)에 비해 감소폭 확대. 이는 코로나 팬데믹 봉쇄와 수출 둔화 등으로 대내외 수요가 부진하고 위안화 약세로 비용 부담도 증가했기 때문. 향후에도 상당 기간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전망(통계국의 Zhu Hong)

■ 국제에너지기구(IEA), 러-우 전쟁은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

- 러-우 전쟁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이에 따른 위기를 초래했으나, 환경 측면에서 화석 에너지 투자를 축소시키는 긍정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 한편 '30년까지 친환경 에너지 투자는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내구재 수주(전월비): 0.4%, 8월(0.2%), 예상치(0.6%)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강달러와 각국의 통화가치 방어, 시장의 교란요인 - The New York Times

(A Rising Dollar Is Hurting Other Currencies. Central Banks Are Stepping In)

-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은 여타 국가들의 통화가치 약세를 초래. 이에 여타 국가들은 자국의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노력. 강달러가 결과적으로 각국 중앙은행의 경기안정 능력을 저해(Principal Asset Management의 Seema Shah)
- 시장에서는 빠른 속도의 미국 금리인상이 금융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 이에 한국, 일본 등은 강달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장에 개입. 한편 일부 국가들은 환율안정을 위해 미국 국채 매도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채시장에서 매수자의 적극적인 매입을 억제
- UN은 미국 통화정책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정 해결을 위해 각국의 협력을 요청. 하지만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

■ ECB의 유동성 흡수 노력,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경계할 필요 - 블룸버그

(ECB Drains the Punchbowl for Economy and Banks)

- ECB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 제공 조건을 강화하고 조기 상환을 추진. 그 동안 시장에서는 역내 은행들이 당초 의도와 달리 TLTRO를 활용하여 매우 적은 위험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지적
- 다만 이러한 조치는 기업 및 가계 신용 공급을 과도하게 축소시켜 경기둔화를 심화시킬 우려. 또한 영국의 경우와 같이 담보물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 다만 ECB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추진하지 않은 점은 관련 위험을 제한

■ 영국, 중소기업의 차입비용 증가 우려 확대 - 블룸버그

(UK Economy's Latest Headache is Rising Business Borrowing Costs)

- 약 절반의 중소기업들은 9월 이후 차입비용 증가, 가용자금 규모 축소 등 차입 관련 시장상황이 악화되어 있다고 진단(중소기업연합회 설문조사)
- 차입 관련 시장 상황 악화 등을 반영하여 10월 S&P 글로벌 종합 PMI가 최근 3개월 연속으로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 또한 이는 경제가 4/4분기에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신호로 평가
- 이러한 상황은 국가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수석 신임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

■ **기저 인플레이션 파악, 정확한 대답이 어려운 과제 - WSJ**

(What's the Inflation Rate? It's a Surprisingly Hard Question to Answer)

- 인플레이션 예측을 위해 모든 일시적 요인들을 제외하는 기저 인플레이션 파악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노력이 지속. 애틀란타 연은의 추정에 따르면 연간 기저 인플레이션은 4.7~7.3%로 연준의 목표(2%)를 상회
- 하지만 실제로 일시적인 요인들을 완벽하게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는 물가가 다른 변수와 상호작용하는 거시경제적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
- 한편 임금은 인플레이션 예상이 반영되므로 물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 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추정한 최근의 기저 인플레이션은 3~4%. 그러나 최근 임금상승세 둔화 등을 고려 시 향후 기저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

■ **유럽 천연가스 가격 하락, 에너지 위기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 - Financial Times**

(The end of Europe's energy crisis is in sight)

■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 주도층, 기존 유산의 도전에 직면 - 블룸버그**

(China's Rising Economic Stars Confront Old Challenges)

■ **일본 채권 및 외환시장,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전환을 대비하려는 움직임 확산 - 블룸버그**

(Pressure Builds in Japan's FX and Bond Markets as BOJ Meet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